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갈등에 3년째 ‘제자리’

코레일, 수익금 10% 요구 등 임대 조건에 협의 난항
사업계획 수정...사업비 절반으로 줄고 사업규모 축소
도로 개설·주차장 신설 지연...앓은 이용객만 불편

호남지역 최대 고속철도(KTX)환승센터로 자리매김할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개발사업 규모도 애초 계획보다 크게 작아진데다, 사업 예정업체와 코레일 간 부지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개발 사업 자체가 사실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은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돼 2014년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7월 서희건설 컨소시엄(서희건설 60%, 교보증권 30%, KT10%)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애초 총 사업비 5000억원, 지상 11층 규모로 구상된 사업계획은 그러나 내 차례에 걸친 수정을 거쳐 사업비 2480억원, 부지 1만7000㎡,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로 축소됐다.

하지만, 부지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은 수년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그동안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소유한 코

레일은 사업시행예정자의 ‘부지 수익매각 또는 임대’ 요구에 2년여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업무용 부지로서 매각은 불가능하지만 조건부 임대는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자와 코레일 측이 부지 임대를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협의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30년 장기 임대 이후 기부채납, 임대료 이외에 이익금의 10%를 요구한다. 공사기간 중 송정역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 등의 임대 조건을 제시했다. 사업시행 예정자 측은 현재 코레일 측의 요구를 검토중이지만 ‘임대조건이 과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해 12월28일 부지임대를 고려해 서희 측에 개발계획을 보완해주도록 요구했다. 이에 앞서 서희 측은 ‘광주시가 부지를 사들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달라’고 광주시에게 제안했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이 부지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광주시도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못했다.

이처럼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용객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호남선 KTX



광주 송정역복합환승센터가 코레일과 사업 예정업체 측과 사이에 부지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3년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개통 이후 역사 이용객은 급증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이 이미 예정됨에 따라 도로 개설 등 교통대책이나 주차장 신설 등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정현 광주시의원은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해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난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코레일 측과 서희컨소시엄 측이 부지임대 조건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희 측에 부지임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사업을 추진해주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에는 KTX와 도시철도, 버스 환승시설과 업무·숙박, 상업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만 첫 여성총통 차이잉원 당선

압도적 표차 주리룬 제압
민진당, 의원 선거도 압승



105년 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이 탄생했다. <관련기사 5면>

차이잉원(蔡英文·59·사진) 대만 민진당 주석은 지난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승리를 확정 짓고 8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차이 주석은 56.1%의 득표율을 기록, 여당인 국민당의 주리룬(朱立倫·31.0%) 후보를 308만 표 이상의 차이로 앞섰다. 민진당은 이날 총통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입법원 선거에서도 전체 의석의 60.1%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개표 초반부터 계속 20% 포인트 가량 득표율 차를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앞서나간 차이 후보는 이번 선거 승리로 8년 만의 정권교체를 실현하며 대만 10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통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차이 후보는 마잉주(馬英九) 총통과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20일 정식 제14대 총통으로 취임하게 된다.

총선에서도 민진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정국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민진당은 113석 가운데 무려 68석을 휩쓸어 과반(57석) 의석을 훌쩍 넘겼다.

애초 40석이었던 민진당은 의석수를 28석이나 늘렸다. 64석을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당은 35석으로 목표치(40석)에도 크게 못 미치는 참패를 당했다. /연합뉴스

더민주, 김종인 카드·문대표 사퇴 ‘뒤집기’ 국민의당, 시·도당 창당 바람몰이 ‘굳히기’

설 앞둔 야권 호남민심 잡기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의당(가칭)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설 명절에 형성되는 호남 민심이 야권 지형 재편 등 4월 총선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면>

우선 더민주에서는 일단 외부 인사 영입이 호평을 받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 등으로 당내 전열을 정비한데 이어 17일

이용섭 전 의원의 복당 등으로 호남 민심을 되돌릴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표는 1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등 돌린 호남 민심 수습책 등을 밝히는 한편 대표직 사퇴 등을 통해 전정배 의원의 국회의원회와 대통합을 추진하며 판을 뒤집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더민주 측에서는 한상진 국민의당 창준위원장의 ‘이승만 국부론’ 발언에 따른 후폭풍이 정채성 논란으로 번지고 호남 국회의원들의 탈당 행렬에 대한 비판적

민심이 확산되고 있다며 고무적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 핵심 관계자는 “이용섭 전 의원과 신진 주자들이 총선 스크립을 짜면 그 반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도 호남 민심을 돌리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북 국회의원 9명은 18일 더민주 잔류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며 17·18일 탈당할 예정이었던 전남의 김영록, 이개호 의원과 광주의 박해자 의원 등도 지역 민심과의

소통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오는 21일 광주시장과 전남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신당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국민의당에서는 조만간 총청과 영남지역 외부 인사 영입 카드 등으로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한편 호남의 정체성에 맞는 정당 정책 등을 제시, ‘이승만 국부론’의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주 내에 전남 및 수도권 의원들의 추가 탈당 등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정치적 실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김영록·박해자·이개호 의원은 탈당 보류보다는 보다 폭 넓게 지역 민심의 이해를 구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 측 관계자는 “여러가지 악재도 있었지만 더민주를 떠나 새로운 희망을

찾는 호남 민심의 흐름은 이미 큰 대세를 형성했다”며 “21일 광주시장, 전남도당 창당 대회에서 호남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자세를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국민회의’(가칭)도 1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장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천 의원이 더민주의 강력한 러브 콜을 받고 있는데다 야권 재편의 시점이 멀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결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062)605-1114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영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C 200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시연비: 10.8km/ℓ, 고속도로연비: 14.1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시연비: 15.1km/ℓ, 고속도로연비: 21.3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d 4MATIC 2,143cc,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ℓ (도시연비: 13.7km/ℓ, 고속도로연비: 18.4km/ℓ), 2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26g/km

본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